

2125년 기다리며 목청 가다듬는 스페인어 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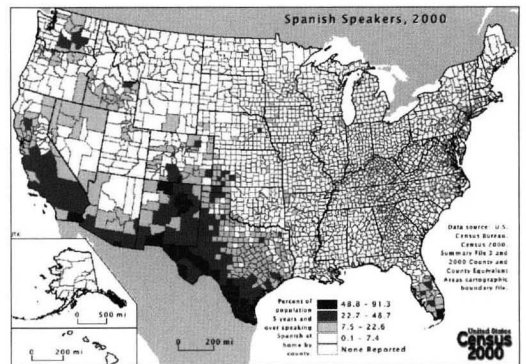
글 | 허선

미국 인구통계 조사에 의하면 라티노(미국에 사는 라틴아메리카 사람)가 미국 소수민족 중 가장 많은 3,5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인구증가와 더불어 스페인어 출판시장도 급성장 했는데 2003년 총 3억5,000만 달러의 매출이 2004년에는 오디오북 한 장르만 8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대형출판사는 물론 도매상, 소매상들도 서둘러 스페인어 출판시장에 뛰어 들고 있고 기존 스페니쉬 출판사들의 미국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스페인어 서적은 미국 출판시장에서 급성장하는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출판사들의 스페인어 출판시장 진출

랜덤하우스 몬다도리 Mondadori 출판사는 스페인어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스페인어 서적을 수입하다 실패한 랜덤하우스 에스파놀 출판사가 전신이다. 이 출판사는 과거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먼저 영업부서를 보강하고 다음으로 수입도서의 선별 작업에 신중함을 취했다. 그 결과 작년 멕시코에서 수입한 유니비전 TV 앵커우먼 지젤 브론데트의 《셀프헬프 가이드 책 제대로 Con los pies en la tierra》는 2만 9,000부가 팔렸고,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내 슬픈 창녀들에 대한 추억 Memoria de mis putas tristes》은 12만 부를 판매하는 실적을 올렸다.

설립된 지 10년 된 빈티지 에스파놀 출판사는 주요 베스트셀러들의 스페인어 번역 출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작년에 발표된 빌 클린턴의 《내 인생 Mi vida》의 스페인어 번역판은 지금까지 6만여 권의 양장본이 판매되었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자체 출판중수도 5년 안에 2배로 늘리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셀프 헬프, 건강, 개인 경제 관련서와 같은 비소설 분야도 추가될 예정이라 한다. 이러한 빈티지 에스파놀 출판사의 분발에 자극을 받은 하퍼콜린스 출판사 계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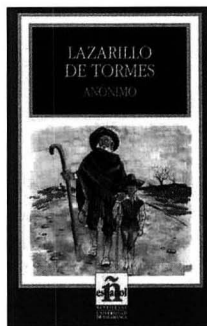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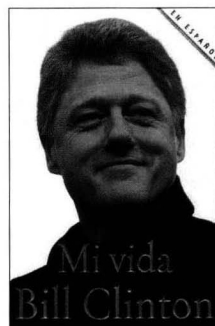


- 2000년 미국내 스페인어 사용자 인구분포.
2125년에는 미국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랴오 Rayo 출판사는 2004년 스페인어 출판시장에서 3종이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데 이어 2005년에는 75종의 책을 출간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랴오 출판사는 좀더 많은 라티노 독자들을 만나기 위해 모든 타이틀을 영어와 스페인어로 동시 출판하고 있다. 이는 히스패닉 시장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룹이 점점 더 늘어가면서 이중언어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위스콘신대학 출판사는 이중언어에 미래를 걸고 있다. 이 출판사는 2005년 8권을 출간할 예정인데 그 중에 반은 스페인어이다. 그러나 번역

• 미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스페인어 출판물들



을 하고, 제작 및 유통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현실을 감안해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출판사들과 공동출판을 계획중이라 한다.

반면, 이러한 미국 출판사들의 스페인어 출판시장 진출은 그동안 스페인어 출판시장의 개척에 나섰던 주요 스페인어 출판사에게 위기감을 가져다주고 있다. 22개국에 출판사를 두고, 33년 동안 미국시장에 자리를 잡아온 산틸라나 Santillana 출판사는 닥터 필 맥그로와 같은 미국 주요 작가들에 대한 전 세계 스페인어 저작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위기에 대처하고 있다. 또한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출판사이자 스페인어 서적으로서 가장 큰 출판사인 프라네타 Planeta 출판사는 2005년 물량적으로 6,000종이 넘는 타이틀을 수입하고 영어출판부를 신설하여 스페인어 서적을 번역하고 있다. 또한 라티노 감성으로 쓰인 영문서적 출판도 계획중이라 한다.

독자들에게 다가가는 스페인어 서적

10여 년 전만 해도 스페인어 서적은 소형 독립서점들이나 라티노 가게 위주로 판매되었으나 이제는 체인서점, 온라인서점, 주요 독립서점들을 통해 활발히 판매되고 있다. 이는 점점 많은 미국 출판사들이 스페인어 서적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외국 출판사들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상대적으로 스페인어 서적의 구입을 쉽게 하고 그 속에는 상업적인 타이틀이 다수 포함됨으로써 독자들의 구매를 더욱 유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게다가 《다 빈치 코드》와 같은 영어 베스트셀러들이 과거보다 빨리 번역되어 영문서적의 마케팅과 홍보를 함께 누리는 데도 이유가 있다.

이러한 발 빠른 판매전략들은 보더스와 반스앤노블과 같은 대형 서점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다. 다른 장르의 서적들의 판매들이 체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 스페인어 서적들은 두 자리의 판매 증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더스는 전 매장에 스페인어 서적을 비치하고 있으며 반스앤노블은 640개 매장 중 540군데에 스페인어 서적을 진열하고 있다. 오레곤주 포틀랜드의 대형 독립서점 파웰스도 스페인어 서적의 판매가 늘면서 스페인어 섹션을 두 배로 늘렸다고 한다.

스페인어 출판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

이러한 판매 상승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어 서적의 홍보와 마케팅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아무리 스페인어 서적의 판매가 증가세라 하더라도 미국의 주요 매스컴과 북클럽은 권장도서로 영문책만 다루고 있고, 그나마 스페인어 서적을 다루는 매스컴은 스페인어 계열 잡지나 방송이기 때문이다. 다만, 〈오프라〉와 같은 토크

쇼에서 한 달에 한 번 스페인어 서적을 추천하는 코너가 있기는 하지만 스페인어 서적의 수요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2125년이 되면 라티노가 다수가 되는 미국의 현실 속에 결과적으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스페인어 출판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미국 출판시장에서 스페인어 서적의 성장은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과거 노동자로 미국으로 건너온 라티노들이 이제는 미국 땅에 뿌리를 내리고 미국의 주류로서 발돋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의 현실이 우리에게만 낯설게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도 외국인 노동자들, 이주자들이 차츰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의 자녀 출생 저하로 가까운 미래에는 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일을 찾아 한국으로 들어올 것이다. 아직은 이르지만 우리 출판계도 다양한 민족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출판물을 기획해야 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

● **이 글을 쓴 허선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출판물 전공했고 2003년 미국에서 PMA Publishing university 과정을 수료했다. 논문으로 〈도서 및 저작권의 수출입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평화출판사와 진선출판사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미국출판마케팅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